

# “책임 회피에 화났지만 한·일 관계 회복해야 한다”

### 유니클로에 ‘한 방’ 날린 전남대 운동선수

### 일본 우익세력 한국 폄해 소재 악용... “실망했다” 한·일 청년들 소통의 장 만드는 시민 활동가 희망 전남대 사학과 모임 ‘광희’, 본보와 팟캐스트 제작

“동영상을 보고 일본인들이 한국의 아픈 역사를 이해해주길 바랐는데 내 취지가 일본에서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전남대 사학과 4학년 운동선수(25)씨가 지난 19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유니클로 광고 패러디’ 영상의 기본 의도는 ‘상호이해와 진솔한 대화’였다. 그러나 윤씨의 희망은 일본에서 부서졌다.

윤씨를 자극한 건 일본 기업 유니클로의 광고 영상이었다. 유니클로가 공개한 광고 영상에는 98세 할머니가 13세 소녀 디자이너로부터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오래 전 일은 기억 못한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한국어판 자막에만 할머니의 대답이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라고 의역됐다.

한국어판 광고 자막이 위안부 할머니를 회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윤씨는 즉시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89) 할머니와 ‘유니클로 패러디 영상’을 만들었고 유니클로를 파장이 커지자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하면서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윤씨의 영상이 글자의 글로벌 기업의 광고를 끌어내렸지만 일본 현지 반응은 사뭇 달랐다.

윤씨는 동영상 제목에 ‘조롱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먼저 밝혔지만 동영상



본보 팟캐스트 녹화 중인 윤동현(왼쪽)씨. 전남일보 유튜브 캡처

에 달린 댓글은 공격했다.

윤씨는 “국내에서 문제가 됐는데 유니클로는 단순히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게 너무 화가 났다. 책임을 완전히 회피한 게 아니냐”며 “나는 단순히 ‘우리가 느낀 점을 당신들도 느껴봐라’는 역사사자의 마음을 갖고 영상을 만들었다. 제 의도가 왜곡돼 단순히 원 폭이나 방산 피해자들을 조롱한 것으로 비춰져 안타깝다”고 했다.

하나의 패러디 영상이 촉발시킨 한일 양국간 정반대의 반응은 윤씨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윤씨는 “이 패러디 영상이 일본 우익들이 한국을 폄해하는 데 활용되는 게 아쉽다”며 “국내에선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솔직히 기쁘진 않다. 패러디 영상을 통해서 대화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평소 역사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만

들며 ‘알기 쉽게 역사 배우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윤씨는 역사동아리 ‘광희’ 회장을 맡고 있다. ‘광희’는 광주 의 희망이란 뜻이다. 현재 광희는 전남일보와 함께 청춘 시사토록 ‘허심탄화’를 제작하고 있다.

윤씨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시민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예정이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 한국의 청년, 일본의 청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한글날을 맞아 일본 전 범기인 ‘육일기’를 규탄하는 카드 퍼포먼스를 벌인 바 있다. 이날 그는 전남대 대운동장 잔디밭에서 검정·빨강·하드보드 476장을 이용한 카드 퍼포먼스를 펼쳤다. 하드보드지로는 일본의 ‘육일기’와 나치 독일의 전범기 ‘하켄크로이츠’를 나란히 재현했다. 전범범죄의 두 상징 사이에는 카드 10장을 활용한 등호

최환지 기자 orchid@jnlbo.com

## “나주시·의회, 영산강 재자연화 입장 밝혀라”

### 죽산보 준치 행사 후련 비판

시민들이 영산강 재자연화에 반하는 죽산보 준치 목적 행사를 후련한 나주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의 20여개 환경단체들의 연합인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은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열린 영산강 뱃길 복원 추진위원회의 뱃길 복원대회는 죽산보 준치를 목적으로 한 행사다. 이를 후원한 나주시·시의회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민행동은 “이전 정권에서 강행했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죽산보 해체와 송촌보 상시 개방으로 정책이 보완됐는데, 나주시·의회의 이번 행보는 정부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황포돛배 탑승객은 죽산보 개방 전부터 줄어들었으며, 수질 악화

와 악취·녹조 등 오염이 지속됐다. 의미 없는 행사의 지속은 곧 예산 낭비로 인한 적자로 이어졌으며 결국에는 나주시민들의 혈세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포돛배 운행은 죽산보 해체 뒤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연성이 회복된 영산강은 나주의 다양한 문화·역사 자원과 연계하는 생태·문화 자원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면서 “영산강 하굿둑 해수 유통과 이에 따른 뱃길 복원 등 장기적인 영산강 살리기 방안도 시급하다. 눈 앞의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큰 그림을 망치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주시·시의회는 영산강 재자연화를 방해해선 안 된다. 객관적인 평가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의 보 처리 방안에 상반되는 행보를 보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공공성에 근거한 해명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선우 기자



가을철 시 조심하세요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아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의심신고가 충남 아산에서 접수된 가운데 21일 광주 북구청 시장상업과 동물관리팀 직원들이 전통시장 내 한 기름판매업소에서 AI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광주전남 국립대 교원·강사 1년 새 380명 감소

### 전남대 324명 최다... 목포해양대 강사 감소율 35.7%

광주·전남지역 5개 국립대학 교원과 강사의 수가 1년 새 4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임·초빙교원과 시간강사는 줄어든 대신 대학강사들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교원은 증가했고, 교원이 줄면서 전임교수들의 수업 부담은 늘고 강사들의 학점 비중은 크게 줄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전국 국립대로부터 제출 받은 교원과 강사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5개 국립대의 올해 2학기 교원과 강사수는 3521명으로, 지난해 2학기 3901명에 비해 380명 줄었다.

대학별로는 전남대가 324명으로 감소 인원이 가장 많았고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도 각각 37명, 16명, 16명 감소했다. 광주교대는 141명에서 154명으로 유일하게 증가했다.

전임교원이 299명 줄었고 시간강사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은 집단임금협약 집단보충교섭을 실시해 2019년11월30일까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년 8월31일까지다” 등 조항에 합의했다.

장회국 교육감은 “6개월 동안 힛트 과정,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고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 협약으로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양가람 기자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아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의심신고가 충남 아산에서 접수된 가운데 21일 광주 북구청 시장상업과 동물관리팀 직원들이 전통시장 내 한 기름판매업소에서 AI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다. 거꾸로 전임강사 학점비중은 목포해양대(8.42%)와 목포대(4.0%), 전남대(0.65%), 순천대(0.26%) 등 대다수 국립대에서 증가했다.

여 의원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대에서부터 대학강사를 줄였고, 전임교원 또한 줄었다. 대신 겸임교원을 늘려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강사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교원이 감소하고 전임교원의 수업 부담이 증가해 수업의 질도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이 안정돼 있고, 국가 정책이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가 이러한 실정이라면 사립대는 더욱 큰 비율의 대학강사 해고가 자행됐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강사 고용현황 자료 중 지난해 2 학기와 올해 2 학기를 비교한 자료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성장 기자

## 전국학비노조, 임금협약 체결

### ‘임금협약 잠정합의서’ 서명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1일 오후 3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세종 비즈니스센터) 5층 회의실에서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장회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과장), 교섭위원을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 및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광주교육청을 교섭 대표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4월부터 교섭에 들어갔다. 이후 8차례에 걸쳐 교섭의제를 협의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2차례, 본교섭·실무교섭·실무협의 등 26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기본급은 2019 회계연도부터 1유형 186만7150원, 2유형은 167만2270원으로 하고 협약체결일부터 교통보조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해 기본급에 산입하되, 1유형은 196만7150원, 2유형은 177만2270원으로 했다.

또한 ‘△2020년 기본급은 회계연도부터 1유형 202만3000원, 2유형 182만3000원으로 한다 △근속수당은 체결일부터 3만4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21년차 68만원, 2020 회계연도부터 3만



장회국 광주시교육감과 전국학비노조 관계자가 2019임금협약 잠정합의서 서명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5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21년차 70만원으로 한다 △맞춤형복지비는 50만원으로 하되, 기본과 근속을 합산하여 최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현행 기준을 따른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은 집단임금협약 집단보충교섭을 실시해 2019년11월30일까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년 8월31일까지다” 등 조항에 합의했다.

장회국 교육감은 “6개월 동안 힛트 과정,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고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 협약으로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양가람 기자

## ‘경찰의 날’ 맞아 광주·전남 경찰 35명 표창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이 21일 기념식을 거행하고 경찰관 포상이 수여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청 무동출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은 양성진 경무관을 비롯해 광주 북부서 형사과 이충

문 경정과 광주 남부서 교통계 김동현 경감이 근정 포상을 수여받는 등 모두 13명이 표창을 받았다.

이충문 경감은 지난해 11월24일 광주 북부서 형사과를 전두지휘하며 보복을 위해 광주로 원정 온 수도권 조폭 등 35명을 일망타진했고 지난해 이월연업주를 상해한 강동삼인 피의자를 30여시

간만에 검거하는 등 한 해 동안 18건의 사건을 해결했다.

또 남부서 김동현 경감은 사고다발지역인 262개소를 중심으로 선제적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해 지난해와 올해까지 2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청 남악출에서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진영 기자

## 사건 인사이드

### 만취해 행인·종업원 폭행 직장인 2명 불구속 입건

직장 동료인 30대 남성 두 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다른 폭행 사건을 일으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21일 만취상태로 각각 행인·술집 종업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A(38)씨와 B(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40분께 광주 서구 한 인도에서 행인 C(26·여)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다.

B씨는 같은날 오후 3시50분께 서구 한 술집에서 종업원 D(41)씨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조사 결과 A·B씨는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직후 술에 취해 이 같은 일들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먼저 자리를 뜬 뒤 길을 배회하다 특별한 이유없이 C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헤어진 직후 자리를 옮겨 술을 계속 마셨던 B씨 역시 D씨와 시비 끝에 고성을 지르며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B씨 모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가람 기자

A씨와 헤어진 직후 자리를 옮겨 술을 계속 마셨던 B씨 역시 D씨와 시비 끝에 고성을 지르며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B씨 모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가람 기자

### ‘어린이들 다친 아찔한 사고’ 유치원 버스 충돌 2명 경상

광주서 유치원생들이 타고 있는 통학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6분께 광주 남구 송하동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A(50)씨의 승용차가 B(61)씨가 몰던 22인승 유치원 통학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인솔교사 A(24·여)씨와 4세 원아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운전자와 인솔교사, 원아 12명 등 총 1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 ‘소태천 도랑살리기 사업’ 수생식물 식재행사 열린다

소태천을 보호와 자연성 회복에 인근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선다.

21일 광주·전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오는 23일 소태천과 광주천 합류부에서 수생식물 식재 및 벼하그리기 행사가 열린다.

소태마을 주민들과 동구정, 광주전남 녹색연합, K-water영산강보관리단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소태천 도랑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태천과 광주천에 자생하는 고마리를 이식한다.

소태천은 소태제에서 발원해 광주천으로 유입되는 도심하천으로, 상류 구간은 특히 자연하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고 두꺼비, 도롱뇽 등 다양한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인근의 영농폐기물과 마을 오수 등으로 인해 하류의 수질오염 개선이 시급해졌다. 이에 2019년 환경부가 주관하는 ‘2019년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오선우 기자